



3면

'완주·전주 통합 시민 중심 공론정치로 완성'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음 12월 19일) 제39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자치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동

지역경제 안정·생활편의 증진 '방점'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소비 촉진 정책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중기 경영부담 완화
교통·의료 대책 강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귀성객 이동 증가 등으로 인한 도민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생에 온기를 더하고 명절 기간 안전과 편의를 빈틈없이 챙긴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생활편의 증진, 안전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민생지원 △생활편의 △안전대책 등 4개 분야, 14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설 연휴 기간에 재난·재해 대응을 포함한 7개 반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각종 발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도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도·시·군·구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주요 성수품 16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배추와 무, 사과와 배 등 농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명태·오징어·갈치 등 수산물, 밥

과 대추 등 임산물에 관리 대상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다소비 식품의 소비기한·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병행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전북도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 농·축·수산물을 은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구매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높여 명절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우체국 소풍물 등 온라인 채널과 전주·서울 등에서 지역 우수 상품 판촉 행사를 열어 판로 확대에도 힘쓴다.

민생 지원 분야에서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핀다. 전북도는 저소득 가정 2,9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09개소에 현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2,400여명에게는 떡과 전 등 명절 음식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아 돌봄 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자립 준비 청년, 노숙인, 결식아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전북도는 희생보듬자금 특례 보증, 민생 회복 금융구조 119, 정책자금 연계 특례 보증 등 총 7,8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약 4주간 특례보증 신청자의 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인다. 명절을 앞둔 임금 체납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한 집중 청산 지도 기간도 운영한다. ▶2면에 계속

민주 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신청 515명 접수 | 실제 접수 결과 다소 유동적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4일, 오는 6월 민선 9기 기초 지방자치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 결과 총 51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위원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도당은 지난달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2일까지 원본 서류 제출과 정밀 대조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러나 신청자가 대규모로 몰리면서 서류 검증에 시간이 소요돼, 오는 7일까지 인터넷 접수 내용과 원본서류 내용이 다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수정 보완해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분야별 신청 현황을 보면, 기초단체장은 접수 14명에 신청자 62명이 접수했다. 광역의원은 지역구 접수 36명에 88명, 비례대표 접수 4명에 11명이 신청했다.

기초의원 분야에서는 시 지역이 접수 130명에 207명이 접수해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으며, 시 비례대표는 접수 16명에 24명이 신청했다. 군 지역 기초의원원은 접수 88명에 101명, 군 비례대표는 접수 9명에 22명이 각각 접수했다.

도당은 7일부터 중앙당의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도당 자격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심사는 공정성과 엄정성을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의정활동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직

선출직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마친 상태로 해당 사실은 당사자 본인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당은 7일까지 정밀한 서류 대조를 거쳐 최종 접수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전체 신청자 수는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서류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선 선거를 향한 예비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전북, 지방주도성장 핵심”

이 대통령-대기업, 지방투자 확대·청년일자리 창출 뜻 모아
'도지사 출마' 민주당 의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활용
지방투자 확대·청년 일자리 창출 이어가는데 최선"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5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이 지방투자 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뜻을 모은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하고 실행에 들어간 가운데 광활하고 원대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새만금 지역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지방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따라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의 준비와 실행력이기 때문에 강력한 개역이 절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발표한 입장에서 따르면 지방주도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재편하는 역사적 전환점인 만큼 향후 5년간 300조 원에 달하는 지방 투자와 대규모 청년 채용 계획은 지역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산업과 일자리 인구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투자 지도에서 전북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권 및 도민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행정적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왜 기업이 전북에 오지 않는가"를 묻기보다 "전북은 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의원은 준비 없는 환영

과 구호만으로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는 만큼 내발적 발전을 통해 강력한 전북을 이루내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시켜 이를 실현해 나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같이 피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전북에는 분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그리고 가장 빠르게 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조건은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강점을 바탕으로 RE100 산업단지, 에너지 기반 AI 신산업 그리고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피지컬 AI를 전북의 실질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기업유치를 의지하는 선연보다 기업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이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이 전북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지역 인재 양성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지금은 속도의 시간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정책과 대기업들의 지방 투자 확대라는 이종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북이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과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대전환을 만들어 가면서 지방주도성장의 핵심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의원은 준비 없는 환영

전북자치도, 완주 비봉면 산불 48분 만에 신속 진화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일 완주군 비봉면 이진리 산불, 산불 188일원에서 오후 2시 2분 발생한 산불을 48분 만인 오후 2시 50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화 현장에는 지상인력 92명(재난대응단 32명, 공무원 25명, 소방

35명)과 진화차량 18대(산불진화차 2대, 산불진화차 4대, 소방차 9대, 기타 3대)가 동원됐다.

현재까지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날 산불로 약 0.31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만호 기자

2026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익산시의회